

“무더진 마음”
Our Callous Hearts
(마가복음 Mark 6:41-52)

2019 년 기해년 (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새해 첫 주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과 진리의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A new morning has broken as 2019, the Year of Pig. I'd like to bless all of you that God's loving guidance always be with you in the new year. We glorified God in the New Year's Eve worship and the New Year's early morning worship. I pray that you all lead a victorious year through worships of the Spirit and Truth.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은 '노모포비아'를 '2018 년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Nomophobia = 'no mobile phone phobia'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는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2008 년 처음 등장한 '노모포비아'는 10 년 세월이 흘러 '올해의 단어'에 등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해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떠해야 합니까? 손에 성경책이 놓여 있지 않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할 때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 가지 않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센서는 늘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민감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No Phone Phobia' 를 'No God Phobia' 로 바꿔 보십시오.**

The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selected 'nomophobia' as the word of 2018.

Nomophobia=No Mobile Phone Phobia.

This means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use one's mobile phone. The term first appeared in 2008 and has risen to the status of the word of the year 10 years later. People feel anxious without their smartphone in their hands. You and me, true Christians, what must we do instead? We don't have the Bible in our hands, or we don't get down on our knees to pray, that's when we must truly agonize. I pray that this year you will not walk even a single step ahead of the Scriptures and prayers. The sensors of our souls must always sense only God. Even if we have everything, but if God is not with us, we are in deep trouble. On the contrary, we must be satisfied with God alone even if we have nothing else. **Replace your 'no phone phobia' with 'no God phobia.'**

오늘 본문은 예수곁에 있었지만 예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강풍을 만났을 때 주님을 까맣게 잊어 버린 제자들, 모진 인생의 역풍 앞에서 쉽게 주님을 잃어 버리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몇 해 동안 매일 긴 베이 브리지를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로 출퇴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바닷 바람의 힘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 위로 운전하는데 바람에 차가 흔들거립니다. 물/불도 무섭지만, 정말 바람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네이도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엄청난 바람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폭풍 중에 물위를 걸으셨던 바람 이야기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story of Jesus' disciples who, despite being with him, were unaware of his presence. Jesus' disciples, who in a fierce storm in the sea completely forgot about Jesus, resemble how easily we lose Jesus when we face the hostile winds of life. For several years when I drove over the Bay Bridge every day to commute to San Francisco, even on an average day I could feel the force of the wind from the sea all over me. The wind would sway my car driving over the bridge. Flood or fire is horrific, but the destructive power of the wind is beyond our imagination. The remnants of what has been swept by a tornado shows how incredible the power of wind can be. Today's scripture also is the story about a severe storm during which Jesus walked on water.

간혹 성경말씀을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위를 걸어? 그것도 세찬 폭풍 중에, 아이 말도 안돼.' '사실은 발목밖에 차지 않은 얇은 물인데, 짙은 안개 때문에 잘못 본거야.' 이런 분들은 성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의 굴절, 착시현상 때문에 물가를 걷는데, 물위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의 말이 옳다면 배도 해안에, 얇은 물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2 명의 장정이 타고 있는 배가 어떻게 찰랑거리는 얇은 물위에 떠있을 수 있습니까? 47 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분명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도 꽤 많았습니다. 강풍이 부는 바다 한복판이 아니라면, 왜 밤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There are often people who regard the stories in the Bible as novels or dramas: "How can a person walk on water? Worse, during a severe storm? What nonsense!" "Actually, the water was quite shallow barely reaching their ankles but because of a thick fog they were mistaken." Such people say that all the miracles in the Bible can be explained scientifically. They say that because the reflection of light created an optical illusion, making it look like Jesus was walking on the water, when in fact He was walking by the water. If such argument of Christian scientists were right, the disciples' boat should also have been near the coast, in shallow water. However, this does not make any sense. How could a boat carrying 12 able-bodied men be floating in shallow water? Verse 47 says that their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sea where the water was deep. Some of the disciples were experienced fishermen who had been fishing in the Sea of Galilee for years. If not for a severe storm in the middle of the sea, why would they have toiled to row the boat all night?

'물위의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사이에 끼워져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성경에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두 개의 에피소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똑같은 문제의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모범답안, 제자들은 번번이 낙제 답안지를 내놓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은 그저 근심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번번히 얌은 소년의 도시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축복하시고, 들판에서 성대한 성만찬을 열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자들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The 'miracle of Jesus' walking on water' is somewhat inserted in the 'miracle of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Because these stories appear in different sections of the Bible, we tend to think these are two separate episodes, but in fact these stories are related. How do we know that? We can compare Jesus' attitude with that of his disciples in response to the same crises they both faced. While the disciples presented failing answers, Jesus always showed correct ones. When the disciples worried that there wasn't enough food to feed a great number of crowds, Jesus looked up at heaven; he sought Father God.

The disciples thought nothing of the meager food that some little boy had, but Jesus blessed the scanty food to offer a massive feast in the field. To my amazement, there was no mention anywhere of the disciples thanking Jesus. This is where the problem arises.

주님께서는 '감사 없는 기적'이 얼마나 공허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해산하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이 차이가 또 한번 나옵니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마가복음 6:46).

Jesus knew how empty and dangerous a miracle without thanks could be. Jesus dispersed his disciples and sent them to the other side of the shore. Right after thi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was revealed again.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to pray (Mark 6:46).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금새 까먹어 버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누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적의 주인공조차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신앙생활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까? 제자들처럼 감사와 기도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게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주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깊숙이, 간섭하고 계십니까?

The life after a miracle is more important than the miracle itself. Without gratitude, we tend to forget so quickly what kind of miracle has happened. Without prayers, we tend to forget who performed the miracle, the doer of the miracle. Why is our life of faith unable to get out of the lull without changing or improving? It's because we are living without gratitude or prayers, like Jesus' disciples. There is a way to know whether we are full of gratitude and prayers: Think how close our relationship to Jesus is. How closely and deeply is Jesus involved in our lives?

제자들은 '주님 없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장면,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모습하고 닮았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인생이 고달프고, 배고플 때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배불리 먹고나면, 주님은 온데 간데 없고, 내 생각, 세상 생각이 넘쳐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전지전능 하신 주님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을까? 왜 감사도, 기도도 모르는 어린 아이같은 제자들을 폭풍 한복판에 보내셨을까?'

The disciples met a massive storm in **a boat without Jesus**. Imagine this scene. Doesn't it surprisingly resemble our lives? When we get weary and hungry, we seek Jesus' help. Once we are satiated, we forget Jesus completely and turn back to our own thoughts and worldly concerns. Although we experienced the miracle of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we have no place for Jesus in our hearts. As I meditated on today's scriptures, I had a question which I had been struggling with all the time: Why did the almighty Lord send the disciples apart in the storm? Why did he send the disciples, who were like little children still learning to pray and appreciate God's grace, to the eye of the storm?

주님은 기적 이후에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지요. 산 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배 위에서 바다 기도하라고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도 모른 채 제자들은 그저 신나게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어느새 제자들은 주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립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제자들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He saw through the hearts of the disciples, who were not submissive to him even after witnessing the miracles. He sent his disciples out to the sea, perhaps because he wanted them to pray in the sea while he prayed in the mountains. Without recognizing the Lord's intent, the disciples were merrily rowing the boat to cross the sea. There is an old saying, "out of sight, out of mind." Soon enough the disciples forgot Jesus; they were getting further away from Jesus as the night was deepening.

오병이어의 놀라운 만찬을 먹고 배를 탔는데, 어느새 새벽 서너시가 됐습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밤을 새워가며 마냥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없는 삶'이 그래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만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 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자격도, 생각도 없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 주시는 귀한 은총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뒤덮인 제자들,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호들갑 떨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셨을까요?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v. 50b).

The disciples came aboard after the remarkable dinner of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it was already three or four o'clock in the morning. They were aimlessly wandering in the deep sea, like **our lives without the Lord**. No matter how hard we try, we can't seem to take a step forward. Tired and discouraged, we fall further into deep despair. But **the Lord was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his disciples**. It was only the Lord's grace that he reached out to the undeserving mindless disciples. Covered by anxiety and worries, the disciples made a fuss calling the Lord a 'ghost.' Think from the Lord's standpoint. Imagine how sad and disappointed He must have been? Yet, he did not scold the disciples. **Rest assured. It's me. Do not be afraid** (v. 50b).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답답할 때, 두려울 때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주님 곁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만을 점점 더 신뢰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보듬고 또 끝까지 품에 안아 주십니다. 먼저 제자가 돼서, 진짜 제자 구실을 해서 제자로 불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비겁하고, 끝까지 철저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피해서 마음의 문마저 굳게 닫았습니다. 이런 제자들, 아니 우리에게, 평안을 거저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27).

The most frequently cited command in the Bible is 'do not be afraid.' When we are frustrated or afraid, we strangely distant ourselves from the Lord. We trust more and more what we immediately see and hear. The Lord didn't give up on his disciples. He embraced them to the end. He called them his disciples not because they became true disciples or behaved like one. They were coward and full of fear till the end. They not only denied Jesus but also closed the door of their heart to the resurrected Jesus.

Nonetheless, Jesus gave peace to the disciples; likewise, he gives us peace as a gift.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John 14:27).

인생의 매섭고 거친 역풍을 만나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인생의 폭풍 한복판에 계십니까? 100m 전력질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숨가쁘게 살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앞에 나오세요. 지금이 바로 주님을 초대할 시간입니다.

Have you ever been frustrated with the gruesome storm in your life? Are you still in the middle of such storm? Do you feel empty even though you've been striving breathlessly? Come to our Lord. Now is the time to invite the Lord in.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뎠어 있었다 (마가복음 6:51-52).

제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들의 ‘무뎠어진 마음’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 미적지근한 마음이 돼버렸습니다. 하루는 스펀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 두 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4,366 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하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ves; their hearts were hardened (Mark 6: 51-52).

The crisis they faced was their **callous, lukewarm hearts** that lost spiritual sensitivity. One day Pastor Spurgeon spoke to the congregation: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f there are only twelve ardent followers of the Lord, we can turn this desolate and lonely environment of London into a joyful one. However, even with the 4,366 members in our church, we won't be able to do anything if we are all dispassionate and hard-hearted."

2019 년도 새해를 미지근한 믿음, 무뎠어진 마음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내 큰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 먼저 내 문제를 맡겨드려 봅시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셨다. 곧 거센 풍랑이 잠잠해 지고, 제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이런 멋진 이야기가 됐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몹시 놀랐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빵으로 배가 가득 찼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영혼은 더욱 무뎠어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Let's not greet this new year 2019 with a callous heart and lukewarm faith. Let's invite the Lord back in, the captain of our life vessels. Let's take our problems to the Lord who is even greater than our greatest problem possible. If the disciples had trusted in the Lord, the Bible would have been written differently, something like this: 'His disciples got down on their knees to pray in the midst of the storm. The Lord rebuked the storm. Soon the storm calmed down and the disciples glorified the Lord.' And yet, the disciples still remained insensitive to God's grace. Although very surprised, they couldn't be thankful. They were fed with miraculous bread but their hearts were hardened. They were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Lord.

오늘 말씀은 주님이 물위를 걸으신 기적, 바람을 멈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서 긴 밤 새워가며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폭풍 뚫고, 내곁에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께 나아

가십시오. 폭풍 중에도 단 한번도 내걸을 떠나신 적이 없는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기적 뒤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기도응답이 '기도중단'이 되면 안됩니다.**

Today's verses are not about the miracles Jesus Christ walked on water or stopped the wind. Rather, it is about **'Who is the owner of our lives?'** The verses tell us who owns the key to our life problems. I would suggest you do not worry about them alone. Don't try to solve them alone staying up all night. Come before God who came to you first. Let's be thankful to God who has never left us alone even amid a severe storm. After experiencing miracles our hearts become insensitive to grace. When we get an answer to our prayers, do not let it stop us from keeping on praying. **Prayer responses shouldn't turn into prayer discontinuation.**

지금 문제의 상황에 봉착하셨습니까?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도 자녀도 위기상황에 봉착했습니까? 벌써 새해는 시작됐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헌 마음'입니까?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문제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늘 어디 체한 것처럼 답답한 마음,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으십니까?

Are you in trouble? Do you find no hope in sight? Are you plunging into the eye of the storm? Are you struggling financially; are your children and family also facing difficulties? The New Year has come, but is not your heart made anew free of fear? Can't you find any clues to resolve your issues no matter how hard you try? Isn't there anyone to speak to about your suffocating heart?

'꿈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우리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I'd like to share a few phrases from the poem titled 'Dreaming is beautiful.'

...Those who have a dream are beautiful.

Dreaming is like having a wing that lifts our thought above an ordinary one.

If we have a dream for tomorrow, our frustration or despair of today wouldn't be a problem.

The tragedy of life is not the inability to fulfill a dream, but not having a dream to realize.

As long as we don't give up on a grand dream, life is beautiful.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하늘 소원을 품으세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세요. 폭풍은 주님께 더 바싹 가까이 나갈 시간임을 일깨워주는 알람 시계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세요.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질 시간입니다. 잘 나가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Let's treasure the holy dream God gives us. Let's embrace the heavenly wishes. Get closer to God when life becomes tough. A storm in life is like an alarm clock waking us up and reminding us to come nearer to God. Wake up from a deep spiritual sleep; it's time to spiritually refresh ourselves. Meet Jesus Christ

when you feel weak and trembling, not when you feel strong and confident. Our Lord is the One who fills us with his abundant grace.

한 노인과 어린 손자가 저녁 노을이 담긴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노인은 잔잔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이외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삶/신앙이 깊어질수록 인생의 모진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무뎠다면 지금 다시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십시오.

An old man and his grandson were sitting together watching the sunset by the lake. Looking at his grandfather, the boy asked, “Grandpa, is there anyone who saw God?” Looking across the other side of the tranquil lake, the old man answered, “My little boy, as I get older I can see nothing but God.” The older we get or the deeper our faith grows, the more we focus on God and the less on the stormy winds of life. If our hearts have been hardened toward God, let's restore our fervent love for God we had in the first place.

2019 년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28-31).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제의 시간에 주님께 다시 나갑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the first week of 2019 I bless all of you with God's Word: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Isaiah 40:28-31).

Let's be thankful. Let's pray. Let's come before God in times of troub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for all of you to be victorious in Jesus Christ this coming week.